

지방의원 외유 도대체 언제까지

수십억 혈세 낭비 지적...선진지 견학 명분 20년째 구태

도의회·남구의회 비난 여론 불구 강행

지방의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명분으로 한 해외연수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해외연수가 지방의원들의 특권으로 정착되면서 매년 광주·전남에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이 과거에 비해 수월해진데다 지방의원들에게 매년 수천만원씩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하다면 개인비용으로 선진사례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계속된 외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 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7일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연수를 다녀올 예

정이며, 전남도의원 13명은 지난달 28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내년 예산에 의원 해외연수비로 시의회(26명) 6400만원, 도의회(62명) 1억40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 시·도 의원은 1인당 180만원이 매년 책정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동·서·남·북·광산구 등 구의원 77명과 22개 시군의 시·군의원 275명 역시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해마다 250만원, 시·군·구의원은 180만원을 해외에 나가는 데 쓸 수 있다. 매년 기초자치단체 마다 2450만원~3740만원이 이들 의원들을 위해 사용

되고 있다.

의원들은 책정된 예산에 맞춰 여행업체를 선정해 동남아·중국 등에 단기 관광상품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일부는 매년 이 예산을 모아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유럽·북미 등 상대적으로 비싼 관광지를 선택하는 등 ‘쌈짓돈’ 마냥 쓰고 있다.

또 정해진 한도를 넘어선 경우 의원들이 주관여행사에 내야할 추가비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집행부가 지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의원들은 의원끼리의 단체 해외연수 외에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해외 시찰이나 순방 등에 동행해 1인당 200~300만원의 비용을 쓰기도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해외에 배우러 간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기간도 짧고 준비도 안 된 상태

에서 가볍게 관광하고 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남긴 보고서 역시 시종이나 의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한 의원이 올 상반기 5박6일 일정으로 이집트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견학한 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수 의원들이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 출범 20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의 의원들에게 해외 선진지 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도입된 마당에 더 이상 의원들의 집단 해외연수가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국노인 1000명 광주왔다

중국 장시성과 안후이성 지역의 노인 관광객 1050명이 4일 광주를 방문했다. 중국노인들이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 노인들

에게 준비해온 문화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중국 노인들은 '42식 태극권'과 '몽골 전통무'를 공연했고, 광주 노인들은 난타, 우리 춤 체조, 건강체조, 오거리나 연주로 화답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광주외고 원점서 재검토”

취임준비위 회견...“교과부 협의 요청 철회할 것”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외고 지정과 관련,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협의(지정) 요청을 철회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장 당선자는 이날 취임준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외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후 심의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안이 생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당선자는 “해당 학원이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적정한 시기에 재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점, 그 부동산의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은 데도 출연하겠다는 내용이 심의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하다면 재심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는 ‘취임 이후 곧바로 지정 협의

철회서 제출, 지정동의 후라도 교육감의 지정고시 거부’ 등 강경책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 당선자가 취임 후 곧바로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철회할

경우 전·후 교육감 간 행정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외고 지정 협의의 결정을 앞두고 현지 실사 등을 마친 상태며 오는 26일까지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3가지 형태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F1대회 전방위 감사 시작

감사원, KAVO 지분구조·경주장 예산 자료 확보

국회도 조사 착수 방침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에 대해 전방위적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을 비롯, 국회에서도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주장 건설 및 대회 운영 과정의 ‘부실’ 여부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 공사사회도 감사로 인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경주장 건설현황을 비롯해 F1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요청 자료에는 F1 대회운영 법인인 카보(KAVO)의 지분구조, 경주장 건설에 들어간 국·도비 규모, 대회 진행 과정에 들어간 예산 내역 등

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자본금의 25%이상 출자금을 넣었거나 출연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KAVO에 대해 전남도는 물론 감사원도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전남도 F1지원본부와 조지위원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주장 건설 지연 ▲마케팅 프로모션 실패를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어 KAVO의 구체적인 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주장 건설을 지연해온 전남도 F1지원본부와 교통·수송 지원 등의 업무를 책임진 조직위원회의 준비 과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 전남도 자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이 대회 담당 부서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최근 감사원에 F1대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국제행사에 관해 감사자료를 요구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검토중이다. 전남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한 특별 감사까지 계획하고 있어 F1 대회에 대한 대대적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F1 대회에 대한 감사는 운영법인인 KAVO의 운영구조 개선 등과 맞물려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빠르면 내년 말 나로호 3차 발사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세번째 발사가 이르면 내년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나로호 3차 발사는 2차 발사 실패 원인을 밝힌 뒤 발사체에 대한 개선 및 복구 작업을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의 발사체 1단부 로켓 제작, 우리 측의 탑재위성 준비 등이 10개월 내에 가능한 만큼 연내 원인규명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11월 이후에는 3차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3차 발사에서의 탑재위성은 2005년 제작해 보관해온 검증 위성을 활용해 과함임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학생독립운동 81주년 기념

시민건강 걷기대회

“현장접수 오전 8시 40분부터”

일 시 | 2010년 11월 7일(일) 오전 9시

장 소 | 광주상무시민공원

참가종목 | 건강걷기(3Km)~

참가비 | 무료

참가문의 | 062-515-8888 / 369-1955 Fax, 062-515-5665

참가자에게는 (주)그린알로에에서 알로에와 허브가 함유된 순수 자연성 고급 미용비누 1세트(2만원) 및 간식을 제공해드립니다.

- 주 최 | CNV 21 방송, 행복나눔 실천연대, 서중·일고55회
- 주 관 | 광주광역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생독립운동연구단
- 협 찬 | (주)진흥건설, 남영건설, S1 센트럴관광호텔, H2H 제과, 진안홍삼

그린알로에, 광주생산 CASS맥주, 문현화 댄스아카데미, 지평대우

- 후 원 | 광신대학교, 민족통일 광주광역시협의회, 서울올림픽국제봉사단체, 신체장애인복지회, (사)사실련, 31사단, 광주시민단체 총연합, K&A 한국시민기자협회, 가락 광주광역시 청년회, 신지애골프아카데미추진위원회, 장성 대화레저관광농원, 긍정클럽,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